

투데이 칼럼

전북의 경제영토 확장, 서부권 메가시티 조성에 달려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제적 자립을 이룰 견인차는 단연코 서부권이다. 군산, 익산, 김제, 부안, 고창을 잇는 서부권은 인구 약 64만명의 탄탄한 기반을 갖춘 '지속형 산업 벨트'다. 이곳은 단순한 지역의 집합이 아니라, 새만금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과 맞닿아 있는 전북의 핵심 '경제 영토'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서부권을 글로벌 메가시티로 도약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현대차 투자의 연계한 '서부권 통합 행정' 시급
 #합력된 환경을 종식하고 현대차의 투자를 성공시킬 '서부권 통합 행정 체계'가 시급하다. 새만금은 지리적으로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에 걸쳐 있어, 각각 소모적인 관할권 다툼으로 소중한 발전기회를 허비해 왔다.
 이제는 시·군 경계를 허물고 서부권 전체를 하나의 '경제 특별 구역'으로 묶어야 한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투자 계획을 기점으로, 일주 공장에서 생산된 수소 상용차가 새만금의 신중 단지를 거쳐 세계로 수출되는 '디지털 모빌리티 허브'를 완성해야 한다. 김제의 특장차 플러스터와 부안의 수소 신원 기



이 장 호
 전 국립군사대학교 총장

반을 단일 행정 컨트롤타워 아래서 집적할 때, 서부권의 기업 유권자는 비약적으로 진화할 것이다.
 이에 더해, 대형 구조물을 위탁 생산하는 해양 지지구조물, 부유식 발전 설비, 그리고 '3세 조류'를 대규모로 배양·가공하는 해양 조류 파우더의 등을 새만금에 적합한 거대 구조 산업의 핵심 축으로 육성해야 한다.
 #거대 구조 산업의 'RE100 에너지 생태계' 확보
 고창·부안의 해상풍력과 새만금 태양광을 연계한 RE100 에너지 생태계를 확보해야 한다. 서부권은 중앙 유지단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청정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에너지 자립형 산업 수도'를 지향해야 한다. 고창의 대규모 해상풍력과 새만금의 수상태양광을 통해 글

로빌 표준인 RE100을 완벽히 구현한다면, 새만금은 전 세계 첨단 기업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다. 에너지의 생산, 소비, 제조가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이 생태계는 서부권만의 특색적인 경쟁력이 될 것이다.
 # '스마트 물류 트라이앵글'과 서전·장항 합류
 '스마트 물류 트라이앵글'로 동북아 허브를 선점하고 지평을 확장해야 한다. 군산항(해양), 새만금 신항(항공), 익산(원도)을 잇는 물류망은 서부권 경쟁력의 핵심이다. 여기에 금강을 사이에 둔 춘남 서전(상항)과의 전략적 합류까지 고려하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이미 난립 생활권이 서전·장항과의 경제적 통합은 서부 메가시티의 체인을 인구

70만 이상으로 키워, 수도권에 대항할 중부권 거대 경제 축을 완성하는 역사가 될 것이다.
 # '해양 사파리'가 공존하는 한국형 골드코스트
 새만금의 '해양 사파리'와 생태 관광이 공존하는 한국형 골드코스트를 구축하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고창과 경사부도의 천혜 자원을 결합하고, 여기에 초대형 해상 플랫폼을 활용한 '해양 사파리' 같은 고부가가치 콘텐츠를 더해야 한다. 새만금 스키트 수련도시와 해양 사파리 그리고 고창·부안의 생태 관광지가 연결될 때, 서부권은 '일하고 싶은 곳'을 넘어 '살고 싶은 명품 해안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신산업의 역동성과 청정 자연의 휴식이 공존하는 모델이 최상의 정수 여건을 완성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서부권은 전북의 경제적 자립을 증명할 최전선의 시험대이다. 6만 명의 인구의 새만금이라는 무한한 가능성을 하나로 묶을 때, 전북은 반향을 넘어 동북아의 중심이 될 수 있다. 행정의 간택이 아니라, 과학에 걸맞은 정책적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서부권 메가시티'는 선택이 아닌 전북의 권역적 미래이다.

기고문

제복입은 시민, 그들의 씬표·목소리가 되는 경찰직장협의회를 꿈꾸며

현장의 목소리가 당당하게 울려 퍼지는 조직, 우리는 그런 경찰을 꿈꿉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변화들이 조금씩 현장에서 느껴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 동료들이 마주하는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저는 오늘 고창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으로 서 그리고 한평의 동료로서 제가 꿈꾸는 우리 조직의 미래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소통이 형식이 아닌 문화가 되는 조직입니다.
 경찰 조직은 특유의 위계질서와 엄격한 기강이 강조됩니다. 물론 치안현장에서의 일사불란함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내부의 불합리나 개선사항을 말할 때조차 그 위계가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꿈꾸는 직협은 현장

의 사소한 고충이 지휘부의 정책으로 연결되는 '살아있는 동료'입니다.
 '발해피야 입만 아프다'는 자조대신 '말하니 정말 바뀌더라'는 신뢰가 싹트는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둘째,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존중받는 일터입니다.
 우리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이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자 권리를 가진 시민이기도 합니다. 과도한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서 동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복지와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직협의 존재 이유입니다. 충분한 휴식과 정당한 대우가 보장될 때 우리 경찰의 치안서비스 질도 높아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셋째, 시민과 경찰이 함께 행복한 치



김 태 훈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경감

안 공동체입니다.
 직협이 단순한 내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단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부 구성원이 행복하고 당당할 때, 시민들에게 더 친절하고 정의로운 법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직협은 조직 내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당한 압력을 막아내는 방패가 되어, 결국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정당한 경찰'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혼자 가면 길이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됩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동료 여러분, 직협은 결코 특정 소수의 점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있을 때 비로소 직협은 힘을 얻습니다. 우리 고창경찰서 직장협의회는 낮은 자세로,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며 우리 모두가 출근하고 싶은 직장,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경찰 조직을 만들기 위해 묵묵히 걸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꿈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직장협의회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든든한 대반인이 되겠습니다.

사설

이비티에스 협동조합의 나눔 실천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협동조합 사업체가 주위의 정성을 받고 있다.
 이비티에스 협동조합(이사장 이승원) 전주지점(지점장 김영순)은 지난 3월 30일 오전 전북자원봉사 센터를 찾아 커피 100개입(50)Box를 전달했다.
 이비티에스 협동조합은 지난 2019년 설립됐다. 설립 이후 장학 사업을 비롯 환경 정화 활동, 주거 환경 개선, 배식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해 왔다.
 특히 이비티에스 협동조합 전주지점은 지역 사회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봉사 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하고 있다. 지난 2024년도부터는 매월 1회 지역 사회 공공시설을 찾아가 한

정 정화 활동을 해온 바 있다. 이번에는 조합원들의 물품을 기부받아 전북자원봉사 센터에 물품을 기부하기로 하였다.
 박정석 전북 자원봉사 이사장은 "이비티에스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 자주 봉사 활동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비티에스 김영순 지점장은 "우리 조합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자원 봉사를 위해 센터와 연계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비티에스는 '독도사랑 주유소'를 전국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그밖에 "지녀 있는 삶"의 실현이라는 노동 약자를 위한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며 지역 사회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장화영 작가의 두번째 개인전

장화영 작가가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기스라 2실에서 두 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주제 '필연에 더하다'는 '필(筆)을 잡은 인연(緣)의 의미'를 강조한 말이다.
 작가는 '학해무변(學海無邊)', 즉 '배움의 바다는 끝이 없다'고 했다. 넓고 깊어진 걸음을 따라서 예의 길로 이어졌고, 붓과의 인연(筆緣)은 필연(必然)이었다.
 이른 봄에 피는 꽃, 깊은 산중향을 날리 퍼뜨리는 난초, 늦가을 추위 속 피는 국화, 겨울날 푸른 대나무는 맑은 색감이 돋보인다. 가람 이병기 시조시인의 '수선화(水仙花)' 등 9개 작품을 펼쳐놓은 이 작품은 이번 전시에서 가장 큰 대작이다. 한글은 판본체와 궁체를 내놓았다. 판본체는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 노래, 궁체는 달

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시를 소재로 한 작품이 전시됐다.
 작가의 호는 혜아(惠兒)이다. '머리는 지혜(慧)롭게, 마음은 아이(兒)와 같다'는 의미다. 원광대 동양대학원 서예문화학과를 졸업, 동 대학교 대학원 한국문화학과에 재학중이다.
 은고을미술대전 대상, 전북미술대전 특선 4회, 전북서도대전 특선상, 특선, 감암서예대전 휘호대회 특선 입선, 부안매항회대회 장려상 2회, 세계서예비엔날레 공모전 특선/입선, 대한민국현대서예문인회대전 산체상 등을 받았다.
 소안 화목회전, 서예비엔날레 전북의산화를 날다(순창전), 전북서도대전 청년작가전 등에 참여했다. 지난해엔 중국 절강대 미술관서 열린 한중일대화서예회와 전각 교류전에 출품한 바 있다.

사내 · 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소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